

# “스님들 노후걱정 마세요”

## 각 종단 기로원 건립... 건강·연금등 복지제도화

한평생을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수행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을까. 승려노후복지문제는 기회만 있을 때마다 거론되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을 비롯 몇몇 종단에서 노후에도 수행에 전진할 수 있는 스님들의 노후복지대책이 종단차원에서 강구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86년 교화일선에서 퇴직한 원로스승들을 위한 기로원(耆老院)을 설립한 진각종(종리원장 탁예)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 3회 종의회에서 스승복지회의 발족을 결의했다. 진각종 스승복지회는 기로원을 중심으로 원로스승들의 원만한 수행, 봉양, 간병을 비롯 입적(入寂)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스승노후복지의 문제를 물론 현직

스승의 복지정책을 제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진각종측은 “원로스승들을 위한 물질적인 봉양뿐만 아니라 종단의 원로로서 예우하는 차원의 정책을 펼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노후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진각종 스승복지회의 본격적인 발족은 다른 종단의 승려노후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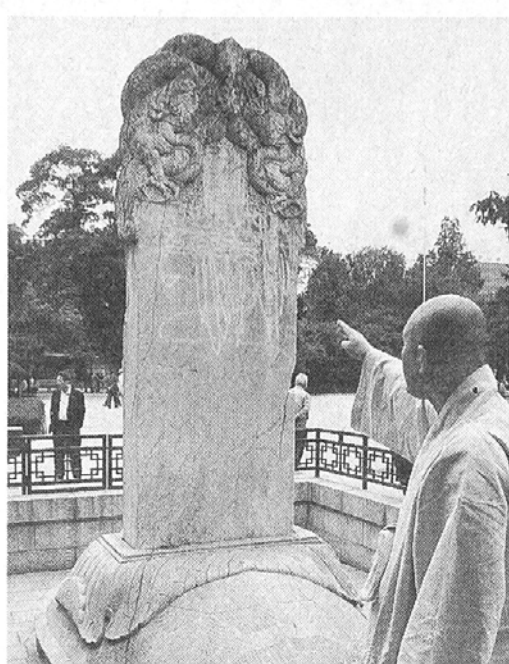
조계종은 이미 법령에 ‘승려노후복지원 설치령’을 마련, 시설 건립, 의료공제회 등을 비롯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태고종은 강원도 평창과 경남 울산(정포마을)에 부지를 마련하고 실버타운 건립을 위해 복지법인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인과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흥성복지장(법인행정원)은 “승려 노후복지시설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불교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도 종단차원에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지종도 최근 강원도 인제지역에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륜종은 충남 논산에 원로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아파트형 복지시설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불교복지 한 관계자는 “노후 거처와 질병치료 등에 걸림없이 수행에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복지 실현이말로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종근 기자>



“비각설치 절실” 보물 제3호인 일각사지비의 붕괴위험을 지적해 온 청성스님(왼쪽)과 사지비(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불교계 인사들. (가운데)는 서울을 탐험중인 현직에서 ‘기복모양의 귀부’에 걸수족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각을 조속히 설치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 ‘5·18’ ‘10·27’ 책임자 참회 촉구

전불련등 5개단체 25일 조계사에서 법회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을 비롯한 교계 5개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5·18학살 및 10·27법난 책임자 참회 촉구법회’를 개최한다.

전불련, 재가연합, 대불련, 대불청, 실천승가회는 지난 18일 대불련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10·27법난 15주년을 맞아 시국법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있는 ‘전두환 물품 전시관’을 옮겨하고 그 자리에 10·27법난 등 ‘법난 역사관’을 조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앞서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정화·지선스님)도 지난 17일 ‘10·27 15주기 및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시국법회’를 오는 27일 열 것을 총무원에 제의했다.

강원지역 군불자 월정사 수계법회

강원지역 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수계법회를 갖는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스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이 지역 군불자와 가족 1천여명을 초청 ‘제1회 강원지역 군인불자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 16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불국사서 30일~내달 1일 개최

제 1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오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2박3일간 경주 불국사에서 개최된다.

‘종교의 갈등과 평화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최병현 서울대학교 수, 일본에서 호조전조 대정대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며 송일주 조계종 총무원장등 한국과 일본의 불교지도자 3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일만찬(10월30일 오후 7시 현대호텔) △제16차대회 개최식(10월 31일 오전 10시, 불국사) △학술대회(10월31일 오후 2시, 현대호텔) △성지순례-통도사 삼광사 범어사(11월1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원로스인 이원섭씨 문화훈장 보관 수상

원로스인 이원섭씨가 문화부로부터 문화훈장 보관을 받았다.

문화부는 지난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오늘의젊은예술가상등 41명의 수훈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훈장을 수여받은 불사 예술인은 이원섭씨 외에도 한국무용가 조흥동씨, 시조시인 정완영씨, 소설가 홍성유씨, 영화배우 장동휘씨등.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단체의 45%가 서울지역에 편중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28%가 사회복지단체의 41%가 운영자금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불교복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 발간한 ‘불교복지편람’에 의해 밝혀졌다.

불교복지편람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시설은 15개 시설 모두가 서울에 편중돼 있고 이들중 14곳이 단순한 하루평균 4백50여명 청소년 포교를 위한 종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복지의 경우 지역복지단 위탁운영등을 통해 아직 미흡하나 전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하루평균 4백50여 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불교복지편람은 조계종 사회

# 복지시설·단체 절반이 서울에

## 조계종, 불교복지편람 발간... 운영자금 태부족

복지재단이 지난 6월23일부터 7월30일까지 시설, 운영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했다. 이 편람에는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부랑인·지역복지등 총1백18개 시설과 단체에 대한 재정, 이용현황과 사업내용, 종사자·자원봉사자현황을 비롯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불교계에 바라는 사항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편람은 부록으로 불교복지시설 주소록 등을 수록하고 있다.

31일 통도사 개산대제 연고제·학술세미나·경노잔치 열려

불보존할 통도사(주지 지은)는 오는 31일 개산 1350년을 맞아 연고제(緣故祭)를 비롯 학술세미나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이번 개산대제는 31일 통도사 개산조 자장율사사사 이운을 시작으로 양산군내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사생대회, 통

통도사 산하 유치원 원아들의 재통잔치, 한불가 경연대회가 이어진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노잔치가 열린다.

이어 11월 1일에는 자장율사의 법통을 잇는 연고제에 이어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경월스님 16일 입적

조계종 원로 경월스님이 지난 16일 오후 9시 부산 소림사에서 세수 80, 법랍 60세로 입적했다.

불자행원 ‘등불회’ 창립

서울은행 부산지역 지점 불자행원들의 모임인 ‘등불회(지도법사 혜덕)가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수련회·천도제 열려

생명공양실천본부 수련회 및 천도제가 지난 14, 15일 양일간 충남 서천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생명공양본부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비롯 지난 6월 신장을 기증한 원공스님과 수혜자 임양수씨, 10월초 이상준군등 3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사후시신을 기증한 이길상, 김치언, 홍종민, 최순미씨등 4명 영가의 극락왕생 기원을 위한 천도제도 봉행됐다.

#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운달

## 최고의 운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 25일부터 윤(閏)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윤력으로 윤(閏) 8월이다. 장의용품 업체에는 수의(壽儀)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예식장 및 이삿짐업체는 예약이 끊겨 운상이다.

을해는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라는 별칭이 붙은 해로 모든 용양이 ‘합일(合一)’을 이뤄 을해는 낯선 생애를 최고의 사주판자를 지니며, 운달에 걸맞은 이사를 하면 해롭고, 수의를 마련하면 재앙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중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인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며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신다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해도 노후모든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울신문 95.9.18 보도내용)



| 품명        | 시중가       | 행사가       | 비고                |
|-----------|-----------|-----------|-------------------|
| 품4호(미)    | 640,000   | 350,000   | 일반품               |
| 품3호(천연미)  | 1,360,000 | 680,000   | 천연마 100%          |
| 품2호(보성포)  | 1,960,000 | 980,000   | 대마 수제, 순창 강포      |
| 품1호(특산삼베) | 4,500,000 | 2,200,000 | 특산단지 지정품 특대마 100% |

\*대역으로만하여 종류별 비교하여 드립니다.



장례 토달 서비스 안내

갑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임종에서 장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운영 24시간
- 장례행사 대행(전국제인연결) ■ 묘지상담알선
- 파출부, 도시락(음식) 알선
- 현재 평생희생제도 운영중(91년시행)

※(주)원품은 손삼베 전문업체입니다.

※이조목제기·병풍을 전시(윤달기간 할인판매)※

※전 제품을 정기보전용 오동박스로 포장하여 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일반할부가능

전국취급점포

본사영업부 (02)566-7676

공휴일 및 주·야 24시간 전화상담합니다. (02)3673-5226

광역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성남

충청도 대전 세종 충청

전라도 전주 익산 군산

경상도 대구 부산 울산

제주도 제주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일반할부가능

TEL 566-7676

제1공공경주(주)부속 제2공공(특산단지)보성군 불교용 마당리